

해 : 기호와 사유 기말 보고서

소로우가 <월든>을 통해 보여 준 숲 속 생활의
필요성과 현대인들의 느끼는 전원 생활에 대한 동경
- 번아웃 증후군과 미디어를 중심으로

영어영문학과
201821653 정원선



목차

1. 서론
2. 본론
 - 19세기 소로우가 월든 숲 속으로 들어간 원인
 - 21세기 현대인이 숲 속 전원생활을 갈망하게 된 원인
3. 결론
 - 현대인의 삶에 필요한 <월든> 적용하기

1. 서론

서문

‘소진 증후군’이란 일에 몰두하던 사람이 극도의 피로감으로 인해 무기력해지는 증상을 일컫는다. 불타서 없어진다(burn out)고 해서 붙은 이름이다. 소진 증후군 혹은 연소 증후군이라고도 한다. 한 직장인은 “휴일만 되면 퓨즈가 끊어진 것 같은 느낌”이라고 표현했다. 번 아웃 (Burn-out)에 빠지게 된 현대인들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에 대한 회피 반응과, 자연 속에서의 삶인 전원주의적 삶에 대한 지향을 보여준다. 하지만, 소로우가 〈월든〉을 통해 다룬 본질들과는 달리, 현대인들은 단순히 ‘도피’의 관점에서만 생각을 하게 되며, 그 이상의 것을 발견해 내지는 못했다.

따라서 이번 보고서를 통하여, 19세기의 소로우가 〈월든〉 숲 속으로 들어가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으며, 숲 속에서의 경험을 통하여 삶에 적용할 수 있을만한 깨달음은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분석을 해보고자 한다. 또 19 세기의 소로우의 목적과는 달리, 21 세기에 살고있는 현대인들이 숲 속에서의 삶을 지향한다면 그 지향의 원인은 무엇인지, 그 원인은 현대인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들인지를 살펴보고자 했다. 만약, 현대인들의 전원주의적 삶에 대한 지향이 소로우가 말한 본질과 상이 했다면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할 지 추가적으로 알아보고자 함이 이번 보고서의 목적이다. 즉, 소로우의 〈월든〉에서 숲 속으로 들어간 목적에 대해, 현대인으로서 현대인의 관점에서 재해석 해보고자 함이다.

2. 본론

2-1) 19세기 소로우가 숲 속으로 들어간 원인과 숲 속에서의 삶을 통해 얻은 것

소로우는 다소 자기 중심적인 면에서 〈월든〉을 작성해 나간다. 그리고 월든 숲 속으로 들어가게 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한계점에 대한 언급을 하는데, 아직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야기는 책 속 저자인 ‘소로우’라는 주제로 한정되어 있음을 밝힌다.

소로우는 문명 국가에 살고 있는 젊은 사람들의 문제를 지적한다. 젊은이들은 농장과 주택, 창고와 가축과 농기구들을 유산으로 받았기 때문에 불행하다는 것이다. 다소 모순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의 시각에 따르면 이러한 것들은 이미 얻으면 버리기 어렵다는 특성을 가졌기 때문이다.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어려움이 없더라도, 자신의 육신 하나를 다스리고 가꾸는 것도 충분한 어려움이다. 그러한 어려움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소로우의 견해이다.

"사람들은 그릇된 생각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것이다. 사람의 육신은 조만간 땅에 묻혀 퇴비로 변한다. 사람들은 흔히 필요성이라고 불리는 거짓 운명의 말을 듣고는 한 옛날 책의 말처럼 좁이 파먹고 녹이 슬며 도둑이 들어와서 훔쳐갈 재물을 모으느라고 정신이 없다. 그러나 인생이 끝날 무렵이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겠지만 이것은 어리석은 자의적 인생이다."

- 〈월든〉 숲 속의 경제학 19 페이지 중

소로우의 말은 라틴어에서 언급하는 memento, mori (=remember to die) 와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사람은 언젠가 죽는 존재임을 잊지 말라는 의미를 내포한다. 사람들이 어차피 죽을 운명 입에도 불구하고 평생을 살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가는 동안 '허영심'을 내려놓지 못한다. 소로우는 인생에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며, 스스로에 대한 노력은 하지 않고 신세만 한탄하는 사람들에게, 또한 부를 축적했지만 어떻게 사용하거나 버려야 할 지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말을 전하고자 한다.

그렇다면 소로우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삶의 방향성을 가진 사람들은 누구일까. 첫 번째는, 강인하고 용감한 천성을 가진 사람들이다. 소로우에 의해 정의된, 강인하고 용감한 사람들이란 '그런 사람들은 천국에서나 지옥에서나 자기 일을 알아서 처리해 나가며, 가진 돈을 탕진하지 않으면서도 거부들보다 더 큰 저택을 짓고 더 풍성하게 돈을 쓸 줄 아는 사람이다'. 두 번째는, 자기의 현재 상황 속에서 자극과 감흥을 발견하며 연인들 사이어나 있을 법한 애정과 열정을 가지고 그것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다. 마지막으로, 어떤 직업이건 만족스러운 마음으로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만족감에 대해 자각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인간은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노력하기 보다는 더 적은 것으로 만족하는 것을 배우는 것을 추구해야 한다. 기존의 경제학과 소로우가 제시하는 '숲속의 경제학'은 꽤나 상이하다. 많은 부를 축적하고, 많은 이득을 얻어 많은 소비를 하는 기존의 경제학과는 달리, 소로우는 적게쓰고 적게 먹는 것으로도 인간은 충분히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소로우의 숲의 경제학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수반되는데, 이는 자신에 대한 이해가 명확해야 하며, 본질에 대한 이해가 가능해야 한다. 또한, 눈의 시각이 아닌 마음의 시각으로 보는 능력을 가져야 하며, 의미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 나는 각자가 자기 자신의 고유한 길을 조심스럽게 찾아내어 그 길을 갈 것인지, 결코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 또는 이웃의 길을 가지는 말라고 당부하고 싶다. 젊음이는 목수나 농부나 선원이 되어도 좋으니, 그가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만은 제발 삼가도록 하자."

- 〈월든〉 숲 속의 경제학 111 페이지 중

작품 전반적으로 소로우의 주장은 다소 명확하다. 간소하게 사는 것이 좋은 삶의 방식임을 명시한다. 흔히 사람들은 소박한 삶이 세상에서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반면, 소로우는 이것은 즐거운 일이며 이런 방식을 추구할 것을 권한다. 간소한 삶의 의미는 물질적인 집착으로부터 해방되어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자 하는 것에 있으며, 소로우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않더라도, 고유의 가치를 찾아 행복하게 살 수 있으며 얽매임이 없는 것을 의미한다.

그는 왜 숲 속으로 들어갈 결심을 했던 것일까. 첫 번째는 인생을 의도적으로 살아보기 위해서였으며, 다음은 인생의 본질적인 사실들 만을 직면해보고자 함이며, 마지막은 인생이 가르치는 바로 스스로 배울 수 있을지 확인하고자 함이었다.

이런 소로우의 월든 숲 속으로 들어가는 실험을 통해, 그는 명확한 가르침 몇 가지를 얻었다고 전한다.

" 나는 실험에 의하여 적어도 다음과 같은 것을 배웠다. 즉 사람이 자기 꿈의 방향으로 자신 있게 나아가며, 자기가 그리던 바의 생활을 하려고 노력한다면 그는 보통 때는 생각지도 못한 성공을 맞게 되리라는 것을 말이다. 그 때 그는 과거를 뒤로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경계선을 넘을 것이다. 새롭고 보편적이며 보다 자유로운 법칙이 그의 주변과 내부에 확립되기 시작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묵은 법칙이 확대되고 더욱 자유로운 의미에서 그에게 유리하도록 해석되어 그는 존재의 보다 높은 질서를 허가받아 살게 될 것이다. 그가 자신의 생활을 소박한 것으로 만들면 만들수록 우주의 법칙은 더욱더 명료해 질 것이다." 이제 고독은 고독이 아니고 빈곤도 빈곤이 아니며 연약함도 연약함이 아닐 것이다. 만약 당신이 공중에 누각을 쌓았더라도 그것은 헛된 일이 아니다. 누각은 원래 공중에 있어야 하니까. 이제 그 밑에 토대만 쌓으면 된다.

- 〈월든〉 맺는 말 477 페이지 중

궁극적으로, 예상치 못한 지점 혹은 시점에서 성취라는 선물을 얻게 될 것이니, 실망하지 말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가는 것이 중요하다. ‘나’라는 인간 위에 서 있는 더 큰 ‘은인’, 더 큰 ‘지성’을 가진 어떤 존재와 함께하고 있으며, 혼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안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이 소로우가 글 전체에서 말하고자 하는 본질이다. 물론, 큰 ‘존재’라는 것은 개인에게 모두 다르게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다. 누군가에게는 신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또 자신이 믿는 다른 무언가 일 수도 있다.

2-2) 21세기 현대인들이 ‘전원주의적 삶’을 지향하는 원인

2-2-1. 미디어(예능 프로그램)에 드러난 전원주의적 삶에 대한 지향¹

나영석 PD 는 ‘자급자족’을 보여주는 리얼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인 <삼시세끼>를 제작했다. 프로그램 <삼시세끼>가 예능 시장에서 큰 의미를 가지게 된 이유는 바쁜 생활 속에 사는 사람들에게 꿈같은 ‘전원 생활’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비록 프로그램의 초점은 요리에 맞추어져 있지만, 그 과정에서 휴식을 가지면서 그 곳에서 노동을 하여 먹을 재료를 직접 얻고 요리를 해먹는다는 것에 의의를 둔다. ‘휴식’이라는 주제는 시청자들에게 여러 방면에서 만족감을 전달하며, 소소하고 충실하게 지내는 삶 역시 시청자들에게 대리 만족을 주었다.

나영석 PD 가 칸 광고제의 ‘지루함의 힘, 평범함이 놀라움이 될 수 있다’라는 세미나에 참석하여 <삼시세끼>에 대한 기획의도에 대해 말했다. 이 프로그램은 본인이 피곤해서 기획하게 된 것이며, ‘무위도식’이라는 표현에 대해 재고하고자 기획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놀고 먹다’라는 과거의 부정적인 표현과는 달리, 긍정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었으며 ‘지금 당장 무엇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또한, 잠시도 쉴 수 없이 하루 종일 일을 하는 현대인들에게 이 프로그램을 통해 사람들에게 필요로 하는 것은 성공보다는 걱정 없는 휴식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밥을 제외하고는 다른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여유 있는 공간을 제공하며, 모든 것에 빠르게 대처할 필요 없이 기본적인 의식주에 집중하고, 때로는 아무 생각 없이 지낼 수 있도록 기획하였다.² 기획의도적인 면에서, 소로우가 ‘월든’ 숲으로 들어간 이유와 유사한 모습을 보인다. 19 세기의 소로우가 기획했던 일을 현대 사람들도 공감하고 있다는 면에서 의의가 있다.

¹ FanBo, <예능프로그램에 내제화 된 힐링 - JTBC 효리네 민박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문화관광 콘텐츠 학과 대학원, 2018년 8월, 6-7 페이지 참고

² FanBo, <예능프로그램에 내제화 된 힐링 - JTBC 효리네 민박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문화관광 콘텐츠 학과 대학원, 2018년 8월, 6-7 페이지 참고

현대인들에게는 이러한 일들이 불가능하고, 환상에 가깝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시골에 대한 지향이 생기게 된다. 또한, 현대인들에게 <삼시세끼>가 성공적이었던 이유는, 현대인들이 이러한 공간을 원하고 사람들에게 여유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한다. 따라서, 프로그램을 통해 대리만족을 경험하게 된다.

더불어 현대인들의 지속적인 관심으로 인해 유사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타났다. 시청자들에게 ‘힐링 예능’이라는 이름으로 <윤식당>, <꽃보다 할배>, <꽃보다 청춘>, <효리네 민박>과 같은 프로그램들이 성공적이었다. <윤식당>, <꽃보다 할배>, <꽃보다 청춘>의 경우 <삼시세끼>와 같은 휴식의 맥락에, 여행이란 테마를 추가한 작품이었다. 각각의 테마에서, 어떻게 혼자서 또는 주위 사람들과 느리고 여유로운 삶을 보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주제로 접근한다. 소박함, 단순함, 일상성과 같은 소재들이 현대인들에게 공감을 전달하며 힐링을 제공하는 것이다.³

현대의 추세는 ‘힐링 예능’이다. 경쟁을 부추기고 그것이 옳은 것이라고 여겼던 과거와 달리 현대인들은 경쟁에 대해 지루함을 느끼고, 경쟁으로 인해 피로해진다. 학교, 직장과 같은 생활 곳곳과 주변 인간관계에서 이미 충분히 경쟁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쟁에 대한 긴장감과 조급함 그리고 흥분보다는 휴식과 일상과 같이, 자극 없고 느린 리듬의 내용을 추구하게 된다. 대중들에게 가장 필요로 하는 요소가 ‘위로’와 ‘치유’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⁴

2-2-2. 현대인들의 현실 도피 추구 원인 - ‘뉴스’로부터 오는 피로감

이전에 살펴 본 ‘예능’ 분야에서는 현대인들의 감정을 어루만지며 동경의 감정을 낳았다. 공감의 감정을 통해 긍정적인 방식으로 현대인들을 숲 속으로 들어가고 싶게 만들었다면, 반대로 ‘뉴스’는 현대인들에게 피로를 야기시키며 ‘탈출’의 관점이라는 부정적인 방식으로 전원주의 생활에 대한 추구를 하게 했다.

“뉴스가 도대체 무엇인가? 그보다는 시간이 지나도 낡지 않는 것을 아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중략) 속임수와 기만이 가장 건전한 진실로 존중을 받고 있으며, 반면에 진실은 거짓으로 여겨지고 있다. 만일 사람들이 진실만을 똑바로 보고 속임수를 용납하지

³ FanBo, <예능프로그램에 내제화 된 힐링 - JTBC 효리네 민박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문화관광 콘텐츠 학과 대학원, 2018년 8월, 7-8, 10 페이지 참고

⁴ FanBo, <예능프로그램에 내제화 된 힐링 - JTBC 효리네 민박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문화관광 콘텐츠 학과 대학원, 2018년 8월, 10 페이지 참고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지금과는 달리 동화나 <아라비안나이트>의 이야기처럼 즐거운 것이 될 것이다. 만약 우리가 필연적인 것과 당연히 존재할 권리가 있는 것만을 존중한다면 음악과 시가 거리에 흘러 넘칠 것이다. 우리가 서두르지 않고 분별력을 발휘할 때, 오직 위대하고 가치 있는 것들만이 항구적이고 절대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도리 것이며, 사소한 두려움이나 사소한 쾌락은 참된 현실의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 숭고한 진리는 항상 우리에게 용기를 준다.”

- <월든> 나는 어디서 살았으며, 무엇을 위하여 살았는가, 146-147 페이지 중

소로우 역시 ‘뉴스’에 대한 지적을 하고 있다. 단순히 뉴스가 현대인들을 현실로부터 도피하고 싶고, 피로하게 만드는 직접적인 영향력이 될 수도 있지만, 뉴스로부터 얻어지는 허무감과 같은 감정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우선, 정치 뉴스는 대중들에게 다양한 감정을 심어줄 수 있다. ‘지루함’과 ‘당혹스러움’이다. 일반적으로 사건이 전개되어 온 맥락에 대한 설명이 빠져있고, 뉴스를 통해 언론사 별 편향된 시각이 생산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정치 뉴스는 대중들을 교란 시키고, 피로하게 야기시킨다. 또한 뉴스의 경우 타인에 의한 부정적인 시각이나 일상생활에 대한 걱정을 만든다. 따라서 이런 영향으로 우울증이 오도록 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⁵

또한, 일반 대중들을 현실로부터 탈피하게 만드는 것은 셀러브리티 뉴스의 영향력이 크다. 사람들은 셀러브리티들, 즉 유명인사를 볼 때 선망의 시각에서 볼 수도, 질투의 시각에서 볼 수도 있다. 선망의 시각에서 볼 경우 ‘이 사람에게 무엇을 보고 배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며, 사소한 것보다는 성장을 위한 기획으로 전환된다면 옳은 방향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다소 극단적인 경우 이러한 관심은 숭배 혹은 자기 자신을 열등하게 만들도록 작용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현재 살고 있는 삶에 대한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며 다른 곳으로 시선이 향하도록 만들 수 있다. 또한, <월든>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인정받고 싶어 하는 내재적인 욕망이 있다. 따라서 셀러브리티들에 관한 뉴스를 보았을 때, 명성을 향한 의지가 발현되어질 수 있다. 또 그렇지 못한 자신의 현실을 직시하였을 때 그와 반대로 현실에 대한 피로감과 허무감을 느끼게 될 확률 또한 큰 것이다.⁶

⁵ 알랭드 보통, <뉴스의 시대>, 문학 동네 출판, 2014년 7월 30일 출판, ‘정치 뉴스’ 부분 일부 참조

⁶ 알랭드 보통, <뉴스의 시대>, 문학 동네 출판, 2014년 7월 30일 출판, ‘셀러브리티 뉴스’ 부분 일부

2-2-3. 현대인들의 현실 도피 추구 원인 - 소진 증후군 (burn-out syndrome) 의 관점에서

번아웃(Burn-out)은 어떤 일에 지나치게 집중한 나머지 갑자기 정신적, 신체적 피로로 인하여 업무에 적응하지 못하고 무기력해지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는 것을 말한다.⁷ KBS <추적 60분> ‘탈출구 없는 피로사회 - 번아웃 증후군’ 편에서 직장인의 85%가 번아웃 증후군을 경험했다고 밝힌 것을 보면, 사회적인 번아웃 현상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 수 있다⁸.

탈진은 다양한 개념으로 정의되어 질 수 있는데, ‘조직 내 구성원들에게 장기적으로 발생하는 정서적, 정신적, 신체적 탈진 및 고갈 현상’으로 정의된다. 또한, 조직구성원들의 직무와 관련된 탈진과 피로감을 의미하기도 한다. ⁹

이러한 탈진 현상은 처음에는 특징적인 직업군에서 발생하였지만, 현재는 다양한 직업군에서 골고루 발생하는 사회적 현상적인 문제 중에 하나로 볼 수 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일에 너무 과열된 나머지 그 밖에 자신을 돌보는 일에 집중할 수 없다. 따라서 사람들은 중간에 방전되는 것 같은 현상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2-2-4. 현대인들의 현실 도피 추구 원인 - ‘피로 사회’의 관점

“한국인이려면 누구나 자기를 착취한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즉각 이해할 것이라고 생각한다.”¹⁰ 라는 말처럼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현재의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바쁘고 팍팍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젊은 세대일 수록 더욱 그런 영역에 대하여 크게 느낄 확률이 크다. 스스로에게 쉴 시간을 준다는 것을, 휴식이 아닌 ‘낭비’라는 관점에서 보게 된다. 그리고 시간을 효율적으로 규모 있게 사용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빠져드는 경향이 있다. 그 누구도 어떤 것이 효율적인 삶인지 규정하지 않았지만, 보이지 않는 틀 안에서 현대인들은 피로감을 느끼게 된다.

참조

⁷ 박수정 외 6명, 한국형 번아웃 증후군 형성과정 및 대처방안에 관한 근거 이론적 접근, 교육문화연구 제 24호-1, 2018년

⁸ 김영은, 언론직 IT 부서의 커뮤니케이션 양식과 번아웃에 관한 연구, 언론 대학원, 2016년 7월

⁹ 김영은, 언론직 IT 부서의 커뮤니케이션 양식과 번아웃에 관한 연구, 언론 대학원, 2016년 7월

¹⁰ 한병철, <피로 사회>, 문학과 지성, 2013년 출판, 7 페이지 참고

또한, “긍정성의 폭력은 박탈하기 보다 포화 시키며,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고갈시킨다.”¹¹ 우리 주변에는 좋은 것들, 해야만 할 일들, 하고 싶은 일들이 넓게 분포되어 있다. 이렇게 주변에 일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단순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은 우리에게 불안을 야기시킨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현대인들은 짧은 시간이라도 효율을 내는 방식을 취해야하고, 우리의 발전을 위한 시간으로서 소비를 해야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 사람은 쉽게 피로해지고, 자신도 모르는 동안 고갈되어 있는 상태에 이르게 된다.

또한 현대 사회에서 개인은 “가해자인 동시에 피해자가 된다.”, “성과에 대한 압박이 탈진 우울증을 초래하게 된다.”¹² 할 수 있는 일이 많다는 것은 긍정적인 요소일 수 있지만, 부정적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무엇을 해서는 안된다는 부정적인 표현보다, 스스로에게 할 수 있으니까 계속 해보자는 압박이 더 크다. 이런 과정에서 현대인은 스스로에 대한 기대감을 얻게 되지만, 그 성과를 이루어 내지 못하였을 때, 갖게 되는 감정은 더 크게 개인을 압도하게 된다. 그 과정 역시 개인에게 피로와 우울감을 주는 큰 요소이다. 설령, 자신감있는 일이 아니더라도 현대인들이 주변 사람들과 자신을 끊임없이 비교하는 까닭에, 도태되었다는 느낌을 받기도 하고, 이런 감정 역시 피로를 초래하게 된다.

〈피로 사회〉라는 저서에서 언급하는 것처럼, 현대 사회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암묵적인 규범들과 현대 사회가 현대인들이 스스로를 자각 하거나, 순간에 충실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다.

3. 결론

- 현대인의 삶에 필요한 〈월든〉 적용하기

19세기의 소로우가 〈월든〉 숲에 들어가기 전 생각했던 것들을 21세기인 현대까지도, 사람들이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면은 놀랍다. 하지만, 현대인들은 단지 전원주의적 삶에 대한 지향이 현대 사회의 문제로부터 단순히 도피하고 싶다는 원인에서 출발한다. 조금 더 자연과 함께 하며 느낄 수 있는 본질에 대해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 아쉬움으로 남을 뿐이다. 월든 속에는, 꼭 무조건적 도피가 아니더라도 삶 속에서 찾을 수 있는 지혜들이 포함되어 있다. 본문을 통해, 원인을 위주로 분석해보았다면 마지막 결론을 통해서 우리가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는 영역들은 어떤 것인지 〈월든〉 속

¹¹ 한병철, 〈피로 사회〉, 문학과 지성, 2013년 출판, 21 페이지 참고

¹² 한병철, 〈피로 사회〉, 문학과 지성, 2013년 출판, 26 - 28 페이지 참고

구절들을 통해 얻을 수 있다.

“사실, 노동하는 사람은 참다운 인간의 본연의 자세를 매일매일 유지할 여유가 없다. 그는 정정당한 대인관계를 유지할 여유가 없는데, 만약 그렇게 하려 들다가는 그의 노동력은 시장가치를 잃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노동자는 단순한 기계 이외에 아무것도 될 시간이 없다. 인간이 향상하려면 자신의 무식을 항상 기억해야 하는데, 자기가 아는 바를 수시로 사용해야만 하는 그가 어떻게 항상 자신의 무식을 기억할 수 있겠는가.”

- 〈월든〉 숲 속의 경제학, 20 페이지 중

소로우는 사람들이 노동의 주체가 되고 있지 못함을 시사한다. 또 한 편으로는, 노동하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가장 현실적으로 직시해주고 있는 말이기도 하다. 현대인들은 너무 자신의 일에만 치중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을 돌아볼 시간이 없다는 것이다. 일을 하는 순간순간에 자신이 인지하고 있는 것에만 얽매일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돌아볼 시간도, 또 아무 생각을 하지 않는 것도 필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다.

“사람들은 진리가 멀리 어딘가에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들은 진리가 우주의 외각 어디에, 가장 멀리 있는 별 너머에, 아담의 이전에, 혹은 최후의 인간 다음에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물론 영원 속에는 진실하고 고귀한 무엇이 있다. 그러나 이 모든 시간과 장소와 사건은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이다. 하느님 자신도 현재의 순간에 지고의 위치에 있으며, 과거와 미래를 포함하여 그 어느 시대도 지금보다 더 거룩하지는 않은 것이다. 우리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진실을 계속적으로 흡입하고 그 안에 적셔짐으로써만 비로소 숭고하고 고결한 것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다.”

- 〈월든〉 나는 어디서 살았으며 무엇을 위하여 살았는가, 149 페이지 중

사람들이 찾는 진리는 먼 곳에 있지 않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소로우가 〈월든〉을 통하여 전하는 말 중 가장 고차원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진리는 가장 가까운 곳인 나 자신에게 있다는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닐까 싶다. 자기 자신을 가장 잘 알고, 스스로의 본질에 충실할 수 있을 때 자신 내면에 있는 깊은 것과 만나거나, 자신이 믿는 그 무언가를 만나게 될 수 있고, 진정한 합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완전히 길을 잃어버리거나 한 바퀴 빙 돌려지거나 하기 전에는 우리는 대자연의 거대함과 기이함을 깨닫지 못한다. 잠에서 깨어나든 몽상에서 깨어나든, 사람은 그

때마다 나침반의 위치를 다시 눈 여겨 보아야 할 것이다. 길을 잃고 나서야, 다시 말하면 세상을 잃어버리고 나서야 비로소 우리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기 시작하며, 우리의 위치와 우리의 관계의 무한한 범위를 깨닫기 시작한다. “

- 〈월든〉 마을, 258 페이지 중

소로우는 아는 길을 잃는 고통은 크지만, 그 고통을 극복해야 진정한 자기 자신을 만날 수 있다고 말하고자 한다. 〈월든〉 속 소로우는 길을 잃고 나서야 자연의 경이함과 기이함을 깨닫게 되었다고 말한다. 표면적으로, 정말 길을 잃음으로써 자연과 합일 될 수 있기 때문에 자연 속에서 길을 잃어 보라는 의미로 여겨질 수도 있지만, 보다 현재에 맞추어 해석해 보자면, 우리가 단순히 지금 하는 일에 조급해 하거나 두려워 하지 말라는 의미로 보여진다. 사람이 삶을 살아가다가 실수 할 수도 있고, 잘못 된 길로 들어서게 될 수도 있지만, 길을 잃어 보지 않는다면 그것이 옳은 방향인지 그른 방향인지 감조차 잡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니, 틀렸다고 실수했다고 두려워하기 보다는 그 실수 속에서 새롭게 자신의 길을 찾아 낼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해했다.

“그러나 우리가 육체에 먹을 것을 줄 때 상상력에도 먹을 것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이 둘은 함께 같은 식탁에 앉아야 한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과일을 적당하게 먹을 때 우리는 식욕을 부끄럽게 여길 필요가 없으며 우리가 추구하는 고매한 작업이 방해 받는 일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음식에 과다한 양념을 치면 그것은 바로 독이 된다.”

- 〈월든〉 보다 높은 법칙들, 323 페이지 중

“왜 우리는 성공하려고 것처럼 필사적으로 서두르며, 것처럼 무모하게 일을 추진하는 것일까? 어떤 사람이 자기의 또래들과 보조를 맞추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마 그가 다른 고수의 북소리를 듣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이 듣는 음악에 맞추어 걸어가도록 내버려두라. 그 북소리의 박자가 어떻든, 또 그 소리가 얼마나 먼 곳에서 들리든 말이다. 그가 꼭 사과나무나 떡갈나무와 같은 속도로 성숙해야 한다는 법칙은 없다. 그가 남과 보조를 맞추기 위해 자신의 봄을 여름으로 바꾸어야 한단 말인가? ”

- 〈월든〉 맺는 말, 482 페이지 중

우리는 성공에 눈이 멀어 스스로를 피로하게 만든다. 뉴스의 시대를 통해 발견한, 혹은 피로 사회를 통해 본, 또는 소진 증후군을 통해 확인한 우리의 피로한 삶은 우리의 성공에 대한 집착으로부터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보다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삶을 바라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현대인들이 추구하는 ‘힐링’의 핵심은 근대에서 탈근대로 이전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어떻게 인간의 본연의 모습을 되찾아야 하는가와 연관이 되어 있으며, 이성과 감성을 분리하지 않고 총체적으로 접근하는 통합적 인문주의와 관련이 깊다. 과거에는 이성이 감성보다 우위에 있었지만, 현대는 이성을 바탕으로 하되 감각과 몸에 많은 비중을 둔다.¹³ 분명, 〈월든〉을 통한 소로우의 생각은 현실에 적용가능 한 부분과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섞여 있다. 하지만, 필요한 부분을 현대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우리가 보다 우리 삶의 본질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한다.

¹³ FanBo, 〈예능프로그램에 내제화 된 힐링 - JTBC 효리네 민박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문화관광 콘텐츠 학과 대학원, 2018년 8월, 29 페이지 인용